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 회의록

일시·장소	2024. 3. 5.(화) 14:00~15:00 대회의실
주재자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진행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월 150만원) 결정 결과, 결정 이유 설명■ 의정활동비 잠정 기준금액에 대한 찬반 의견 발표, 질의응답■ 방청객 의견제시 등

□ 공청회 내용

■ (사회자) 지금부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게 된 기획팀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그 간 추진사항과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설명, 발표자 의견발표, 발표자 상호 간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와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민의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청회의 주재자이신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발표자이신 △△△님 이십니다.

발표자이신 □□□님 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공청회 주재자이신 ○○○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 (주재자)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재하게 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기준금액 최종 결정에 반영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먼저 원활한 공청회 진행을 위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9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으며,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소란한 행위,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청회 진행을 방해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언 중지 및 퇴장을 명령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결정된 의정활동비 기준금액과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상한액이 시군자치구 의원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 총 월 150만원 이내로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7일 1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잠정지급액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월 15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이유로는,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로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자 하는 법의 개정 취지를 존중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물가상승률,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산시 타 구·군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 간의 숙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식을 공청회로 결정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자들의 의견발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5일부터 공청회 개최 공고를 하여 발표를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았으며,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찬성 이어서 반대 순으로 진행하며 각 발표자는 5분 이내의 발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이신 △△△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발표자) 반갑습니다. 구포동에 거주하는 △△△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 동안 동결됐으며,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기초의회 40만원, 광역의회 50만원 인상할 것을 의결한 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으로 15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 법령의 개정 취지인 물가상승률 대비 의정활동비 현실화입니다. 2003년부터 20년간 의정활동비는 동결되었으나 그동안 물가는 59.6% 상승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총 40만원 인상되었을 때 인상은 36.3% 정도로 20년간 물가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 비해 정보이용료, 통신비, 교통비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반되는 비용은 생각해 보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되면 아무래도 소극적인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

지 우려가 되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훌륭한 인재들이 과연 의원이라는 직에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6년부터 지방의원이 유급화가 된 현실에서 의정활동비는 그대로인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과 의원들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라도 지급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하여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원 1인당 주민수입니다. 우리 구 의원수는 14명, 인구수는 27만명 정도로 의원 1인당 주민수는 1만9천명 정도입니다. 원도심에 비해 우리 구는 인구수가 많을 뿐 아니라 넓은 도시면적, 열악한 도심환경, 많은 취약계층 등 여러모로 타 구 대비 구의원의 역할이 크다고 보이고 절대적인 수치로만 봐도 과도한 것 같습니다. 역할과 책임, 그것에 대한 지원은 비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쯤은 다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외에도 지난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지방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방의회와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집행부가 커지면서 조례제정,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업무가 양적으로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의원들은 장기근무를 통해 경험이 쌓인 직원들에 비해 행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의정활동비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전문성이 향상되어야 전문성의 차이를 좁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의정활동의 유인책 마련과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부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상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복구를 만들어 가는데 쓰이길 바라면서 이상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제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 의견이신 □□□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발표자) 반갑습니다. 화명동에 거주하는 □□□이라고 합니다. 먼저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청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는 철저히 검토를 하고 추진했겠지만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 뉴스 등 언론보도를 살펴보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항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 구에서 1차 심의 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의정활동비가 20년간 동결되면서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못지않게 열심히 일한 기초의원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메고 있는 힘든 상황이고 지자체들은 세수감소를 우려하며 긴축재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는 점은 대다수 구민들은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반대 사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먼저 우리 구 재정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론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23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11% 정도로 부산시 16개 기초지자체 중 15위입니다. 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약계층이 많아 복지예산이 많은 점, 주거밀집지역으로 세수가 적은 점 등 우리 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향후 재정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지자체의 필수 사업추진에도 영향이 갈텐데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외면한 채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의원님들이 우리 북구와 구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인상된 부분이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그에 따른 보조활동비입니다. 이 외에도 의원들은 정책연구단체 운영비, 교육비 등 별도로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정책지원관 제도가 2022년 7월부터 도입되어 의원 2명당 1명씩 의정활동 보좌와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우리 구에도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20년간 동결되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근무환경 개선과 의정활동 뒷받침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 정도면 구의원의 자료수집과 연구가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무리하게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중복 지원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최대 폭으로 맞춰 인상안을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보여지며 여러 요인을 잘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준금액을 정했으면 합니다. 인상이 불가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자립도와 여타의 상황을 고려해서 인상 폭을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표자 상호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인 △△△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발표자) □□□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능력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의원들에게 의정자료 연구, 수집비를 적게 지급하고 타 구와 비슷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자체 간 의원의 자질과 역량은 격차가 벌어지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간다고 봅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지자체 업무와 예산이 늘어나면서 의정활동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바란다면 지방의원의 활동 여건은 보장하고 그에 대해 평가를 하는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야한다고 봅니다.

■ (반대 발표자) 의정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은 △△△ 발표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외 월정수당을 별도로 받고 있고 겸직도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2022년 7월부터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을 하는 전문인력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먼저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우리 구 재정상황에 여유가 있다면 인상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민들은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가계 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어 바로 최대액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 (찬성 발표자) 제가 생각할 땐 정책지원관 제도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원들은 의원 나름대로 정책지원관은 전문가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고 수집할 수 있는 범위도 다릅니다. 지방의 자립성을 위해 더 많은 자료 수집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능력 있는 유능한 인재 유입을 위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재자) 다음은 반대 의견인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 발표자) 1991년 지자체 도입 당시 무보수 명예직에서 시작되었고 2003년 명예직이 사라지고 2006년부터 유급제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데 찬성 의견을 보면 대부분 개정취지와 물가상승률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민생을 고려하지 않은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외에 월정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물가상승률에 따

라 반영되고 있고 의원들은 겸직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발표자)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비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과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 쉬는 날도 많은데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의정활동과 다양한 감시시스템으로 인해 겸직이 쉽지 않고 병행하기 힘든 조건입니다. 먼저 회의일수를 살펴보면 1년에 90일 정도 됩니다. 그러나 회의일수만으로 계산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회기 중에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이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주민들과 만나서 민원 접수 등 다양한 대민활동이 핵심적 업무이고 주로 비회기 중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지방의원의 활동을 관찰하면 누구보다 바쁜 직업이고 또 누구보다 바빠야 하는 직업입니다.

■ (반대 발표자) 네, 물론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은 활동하기 힘들겠다 생각은 합니다만 과연 직장인이 의원으로 출마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직업이 있다면 대부분 자영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북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최대폭으로 인상한다고 결정이 되면 과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두 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방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방청인께서는 손을 들어 사는 동,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손들어주십시오.

■ (주민1) 네 반갑습니다. 금곡동에 거주하는 ***입니다. 아무도 발표할 분이 없어서 그래도 한 명 정도는 발언을 하고 마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재자이신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 발표자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찬반 토론을 들어보니까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주장 같고 준비들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저희가 당사자가 안 돼 보면 당사자 입장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만 보이고 그 분이 과장 되면 과장 입장에서 그 시야가 넓어지고 또 부서장이나 사장 되면 더 넓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님이 오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게

보통 반대자의 발표라고 보면은 상당히 비관적이고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님이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인상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우리 북구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인상 폭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견 중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누가 출마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출마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열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의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 분이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예요. 제 지역구 주민들이 얼굴 한 번 못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회기 때 와서 방망이 두드리고 회기 때 와서 의원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기일수는 팔십 며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의원들은 근무 시간이 무한대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전화 오면 새벽에도 나가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의원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석 일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대면을 해서 민원인의 어떤 가려운 점을 직접 듣고 알아야 그것을 의정으로, 법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의원을 보좌하는 역할이지 의원을 대신하는 역할이 아니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의견을 받아왔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라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정자립도가 11.1%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재정자립도 보다 재정자주도를 씁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건 우리 북구의 수입, 지출 그것만 따지는 게 재정자립도고 재정자주도는 정부에서 예산 따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재정자주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 살림이 더 윤택해지는데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역할을 많이 해야합니다. 의원들이 예산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올리면 이 지역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구나 해서 그 예산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의원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구는 주민시설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우리가 과감하게 너 일 한번 잘해봐라하고 한번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인 의견 중에 ***님은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정책지원관이 의원들 대신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과 회기는 80일이라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거기에 얽매어서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없습니까?

■ (주민2) 화명동에 거주하는 ***입니다. 오늘 공청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16개 구군 중에서 15위라는 것은 아주 열악하다는 의미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상황에서 의정활동비를 올려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듭니다. 지난번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올렸고 또 우리 의회도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조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북구의회 개개인 의원들의 활동 상황이나 이런걸 보면은 아주 낙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없는가, 음주해서 싸운 사람이 없지 않는가, 또 의원들 간 상호 간에 치고박고 하는 게 없는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비 올려주라고 한다 이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최대액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팽배하고 올려주기는 올려주되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의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기에는 부정적 이슈가 있었던 분들은 절대 의원으로 뽑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두눈 뜨고 감시하고 젊고 유능한 분들을 의회에 보내서 더 나은 우리 북구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게 된 것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공청회라는 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시 해주시고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종합을 해서 또 설문조사도 하여 의정활동비를 최종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실수록 더 많은 참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 (주민3)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곡동에 거주하는 ***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좀 낯설긴 합니다. 저는 실제로 좀 민원을 몇 번 넣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민원 처리가 생각보다 엄청 잘되어서 사실 구의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구의원분들이 조금

젊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실제로 아까 △△△ 발표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민원을 넣기도 하지만 사실 감시자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를 조금 인상을 좀 해줌으로써 실제로 이분들이 조금 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률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계속 구의원들이 안 좋은 이슈가 있다고 해도 활동도 엄청 많이 하시고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 진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말 좀 젊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의정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 더 좋은 발전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좀 올려서 젊은 구의원분들이나 활동을 하는 의원분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줌으로써 구민이 살기 좋은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재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요지는 조금 인상을 해서 의원들의 질을 좀 높이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없으면 방청인의 의견을 듣는 시간은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지 못한 분은 나눠드린 설문지 작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